

<2022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>

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총평

□ 심의위원회 구성

구분	이름	직함	근무지(부서)
예술창작	조영신	사무처장	(사)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
	이정훈	팀장	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팀
	이지현	팀장	중랑문화재단 축제공연팀
지역문화프로젝트	주성진	대표	문화용역 운영 및 컨설턴트
	문선옥	팀장	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날 기획팀
	이민정	팀장	종로문화재단 문화기획팀

□ 심의 총평 (심의위원 순위 무작위)

[예술창작]

- 강북이라는 지역의 특정적 장소성과 연계된 작업 다수가 응모됨으로써, 지역 장소와 연계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업을 구성하고 기획하는 시도는 차별화 된 다양한 지역/장소 특정적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주목하게 된 특징으로 매우 의미있는 지점으로 읽혀짐. 다만 각 작업의 구체화 과정에 있어 융합을 표방하면서 장르간 단순 병렬적 연계하는 형식, 강북 안 장소성과 역사적 사실 접근에 있어 해석과 내용전개의 모호성, 작품에서 관객의 역할부여에 상호반응에 대한 고려 등 부분적 실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완한다면 더욱 좋은 작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여지는 기획에 대해 아쉬움이 남음.
- 전반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개인 혹은 자체의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예가 많았으나 홍보활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팔로워들이 있어 홍보계획에 있어 재단의 지원이 필요해 보임
- 사업개요에서 축약한 내용을 기획의도, 세부내용에 보다 명확히 기술한지의 여부에 가장 중심으로 고려함. 홍보는 제안한 창작사업에 적합한 대상 및 홍보틀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지 보고 사업계획 적절성에 반영함. 운영역량은 그 간의 경력이나 경험이 추진하고자 한 이번 사업과 연계가 높은지 최우선으로 살핌. 예산계획은 총 예산대비 내역이 균형있게 설계되었는지, 세목별 예산으로 사업이 원만히 운영될수 있는지, 불필요한 편성이 있는지 확인함.

[지역문화예술프로젝트]

- 예술창작이 '예술가의 창작'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, 지역문화프로젝트는 '시민의 예술 경험'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나 많은 지원자들이 '나의 프로그램의 시민이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?'의 질문보다 '내가 시민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?'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.
-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가업에 참여하게 된 점이 반가움. 신진 예술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줌. 지역과 협업하고자 하는 신선한 기획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도 눈에 띄었음. 이 사업이 지속될수록 지역예술인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지역에 대한 애착도 깊어지는 것 같아 앞으로 이 분들의 지역에서 활동이 기대됨.